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정혜선¹⁾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ye-Sun Jeong¹⁾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우울수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우울점수는 100점 만점에 53.49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우울수준은 감성지능이나 대학생활 적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은 학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이었고 설명력은 77.7%이었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점수는 높은 편이었고,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관리함과 동시에 감성지능 등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핵심어 : 중국인 유학생, 우울, 감성지능,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level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made with 219 Chinese students attending one of two universities in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nam-do, respectively,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15, 2014. The subjects' depression level was 53.49 out of 100, higher than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their depression level was in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culturative stress. Lastly, factors found to influence the depress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were grade,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77.7%. As presented above, the depression level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was higher than the average, and in order to reduce their depression and support their healthy life during their stud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make holistic approaches in consideration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ir depression. Moreo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effectively by managing negative psychological conditions such as acculturative stress and reinforcing

Received (November 26 09, 2014), Review Request(November 27, 2014), Review Result(December 12, 2014)

Accepted(January 05, 2015), Published(February 28, 2015)

¹314-701 Dept. Nursing Science, Kongju National Univ. 56 Kongju daehak-Ro K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hsjong@kongju.ac.kr

* 본 논문은 공주대학교 신입교수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 Chinese Students, Depression,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1. 서론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2008년 학위와 연수과정을 포함하여 63,952명에서 2011년 이후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2014년 84,891명으로 파악되어, 여전히 그 수가 많은 상태이다[1].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68.9%를 차지 할 만큼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2], 2014년 국내 유학생 10명 중 6명이 중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3]. 이처럼 유학생의 숫자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 및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생각할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건강한 대학생활을 통해 학업을 성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신체 및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학교나 학생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학생들은 유학생생활 동안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어 신체적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결과 건강증진 행위 이행정도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파악되었다[4]. 그러나 유학생생활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심리적으로는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물론 어학능력, 교육 및 학업, 학교생활,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5-11],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여 유학생들에게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 불건강 상태를 초래하고 [6][10-11][12],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3].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심리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상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6-11]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13-15] 등이 있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문제 중 우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 동안 생소하고 이질적인 문화, 언어, 교육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심리적인 혼란과 부적응 현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16]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상관성이 높아서 우울의 발생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중 약 50%에서 우울함이 파악되어 그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8], 더욱이 우울이 심한 경우 일, 가정생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단순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음주 등의 불건강행위와 관련[7][17-18]되므로 신체

적 및 사회·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제변수들간의 관련성 [7][9-10]을 보았거나,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담중재 적용[19], 그리고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6],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20]와 인구학적특성, 한국어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21] 등을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

유학생의 우울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감성지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여 조절하며,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22-23]을 말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대응전략을 파악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찾기, 인지적 평가 등 대응전략의 5가지 하위영역을 모두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24]. 또한 감성지능은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능력, 의사소통 능력[25-27]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어[28]. 감성지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과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 이라는 변수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그 관계를 파악한다면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을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학생활 적응 등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그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 소재 1개 대학교와 충청남도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희망한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60부 중 24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3.8%이었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25부를 제외하고 최종 219부가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2014년 6월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설문지를 중국어와 한국어 활용에 문제가 없는 중국인 박사과정생이 번역하여 중국어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014년 7월 중

국인 유학생 10명에게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문항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1차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중국어 원어민 강사에게 의뢰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2014년 8월 2차 및 3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중국어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명의 연구보조자인 중국인 유학생이 하였는데, 연구시작 전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설문지 작성의 주의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받았다. 연구보조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일대일로 만나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 윤리적 측면을 이행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보조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CES-D는 Radloff (1977)[29]가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on과 Rhee (1992)[28]가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원래 CES-D는 우울 정서(Depressive Affect), 신체적 증상(Somatic Symptom),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된 것을 이용하였고 4개의 문항(4.8.12.16)은 역산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n과 Rhee (1992)[30]가 한국어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했을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di (1994)[31]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총 36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36-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및 기타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개발당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 & Law (2002)[32]가 개발한 WLEL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도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도구는 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문항의 7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

서 11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 (1989)[33]가 개발한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문항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33번 '나는 같은 방 친구 룸메이트와(함께 기숙사 혹은 하숙 생활을 하는 경우) 잘 지내고 있다' 1문항을 제외하고 66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66문항의 9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66점에서 59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도구 개발당시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Duncan)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으며, 우울의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파악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나타내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여성이 56.8%, 종교가 없는 경우가 83.4%, 학년별로 1학년이 21.4%, 2학년 21.8%, 3학년 20.1%, 4학년 31.9%, 5학년 4.8%이었으며, 소속대학별로는 인문사회대가 62.0%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58.5%로, 거주기간은 13개월-36개월이 48.0%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는 나쁘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2.5%, 성격성향은 보통이 64.2%, 전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가 보통인 경우가 각각 57.2%와 63.3%, 한국어 능력이 중이라고 응답한 군이 58.1%, 성적은 하라고 응답한 군이 42.8%로 가장 많았고, 어학연수를 받은 경우가 77.7%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우울

[Table 1] Depression by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219)

variable	category	N(%)	Depression		
			M(SD)	t(p)/F(p)	Scheffe
gender	female	130(56.8)	2.59(.55)	2.706(.007)	
	male	99(43.2)	2.78(.49)		
religion	not have	191(83.4)	2.66(.54)	.875(.383)	
	have	38(16.6)	2.75(.50)		
grade	1	49(21.4)	2.97(.33)c	9.682(<.001)	c>b>c
	2	50(21.8)	2.83(.47)bc		
	3	46(20.1)	2.45(.64)a		
	4	73(31.9)	2.51(.49)a		
	5	11(4.8)	2.66(.62)ab		
attending college	liberal art and society	142(62.0)	2.81(.47)c	10.330(<.001)	c>b>c
	science and engineering	21(9.2)	2.70(.54)bc		
	education	42(18.3)	2.34(.55)a		
	others	24(10.5)	2.46(.58)ab		
residence type	dormitory	134(58.5)	2.57(.58)a	6.199(.002)	b>a
	live alone	50(21.8)	2.77(.45)b		
	others	45(19.7)	2.86(.42)b		
length of stay in Korea	12month ↓	26(11.4)	2.11(.44)a	22.356(<.001)	b>a
	13-36	110(48.0)	2.83(.48)b		
	36month ↑	93(40.6)	2.65(.52)b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so-so	143(62.5)	2.85(.44)	6.985(<.001)	
	good	86(37.6)	2.38(.55)		
personality tendency	introverted	15(6.6)	2.58(.59)ab	8.840(<.001)	b>a
	so-so	147(64.2)	2.78(.50)b		
	extroverted	67(29.3)	2.46(.54)a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16(7.0)	2.72(.58)b	20.071(<.001)	b>a
	so-so	131(57.2)	2.84(.44)b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dissatisfaction	10(4.4)	2.72(.58)b	14.363(<.001)	b>a
	so-so	145(63.3)	2.84(.44)b		
	satisfaction	74(32.3)	2.39(.55)a		
Korean language skill	poor	40(17.5)	2.60(.59)ab	4.869(.009)	b>a
	middle	133(58.1)	2.76(.52)b		
	good	56(24.5)	2.51(.50)c		
school record	poor	98(42.8)	2.85(.48)c	13.088(<.001)	c>b>a
	middle	75(32.8)	2.63(.51)b		
whether to have attended a language program	good	56(24.5)	2.42(.56)a	6.985(<.001)	
	have	178(77.7)	2.76(.54)		
	not have	51(22.3)	2.38(.41)		
	total mean		53.49(10.70)		
	grade point mean		2.67(.5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울수준은 성별, 학년, 소속대학, 거주형태, 한국체류기간, 대인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 학교만족도, 한국어능력, 성적 그리고 어학연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2.78점으로 여성의 2.59점보다 우울수준이 높았으며($t=2.706, p=.007$),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2.97점($F=9.682, p<.001$)으로, 소속대학별로는 인문사회대학이 2.81점으로($F=10.330, p<.001$)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취가 2.77점, 기타 2.86점으로 기숙사의 2.57점보다 높았고($F=6.199, p=.002$),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가 2.83점, 3년 이상이 2.65점으로 1년 이하의 2.11점보다($F=22.356, p<.001$) 높았다. 자신이 지각하는 성격성향에 따라 보통인 경우가 2.78점으로 외향적인 경우의 2.46점보다($F=8.840, p<.001$), 전공만족도($F=20.071, p<.001$)나 학교만족도($F=14.363, p<.001$)에 따라서는 각각 불만족이나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만족의 경우보다 높았고,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는 중이 2.76점으로 상의 2.51점보다 높았으며($F=4.869, p=.009$),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하 2.85점, 중 2.63점, 상 2.42점으로 성적이 나쁠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F=13.088, p<.001$).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에 따라서는 받은 경우가 2.76점으로 받지 않은 경우의 2.38점보다 높았다($t=6.985, p<.001$).

3.2.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우울은 53.49점(평점평균 2.67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97.65점(평점평균 2.71점), 감성지능은 71.92점(평점평균 4.50점), 대학생활 적응은 356.86점(평점평균 5.41점)이었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

[Table 2] Depression,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subjects (N=219)

Variable	score range (total)	score range (item)	Total mean Mean(SD)	Grade point mean Mean(SD)
depression	20-100	1-5	53.49(10.70)	2.67(.54)
acculturative stress	36-180	1-5	97.65(19.82)	2.71(.55)
emotional intelligence	16-102	1-7	71.92(12.06)	4.50(.75)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66-595	1-9	356.86(40.87)	5.41(.62)

3.3.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r=.795,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감성지능($r=-.602, p<.001$), 대학생활 적응($r=-.705,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감성지능($r=-.603, p<.001$) 및 대학생활 적응($r=-.657,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은 양의 상관관계($r=.527, p<.001$)를 보였다 [표 3].

[표 3] 대상자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subjects (N=219)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on	.795 (<.001)	-.602(<.001)	-.705(<.001)
acculturative stress		-.603(<.001)	-.657(<.001)
emotional intelligence			.527(<.001)

3.4. 대상자의 우울 영향요인

[표 4] 대상자의 우울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among subjects (N=219)

Variable	Model I		Model II	
	β	t(p)	β	t(p)
Constant		17.461(<.001)		7.809(<.001)
gender	-.123	-2.311(.022)	-.030	-.801(.424)
grade	-.322	-4.823(<.001)	-.154	-3.100(.002)
attending college	-.008	-.145(.885)	.060	1.608(.110)
residence type	-.078	-1.441(.151)	-.048	-1.287(.200)
length of stay in Korea	.327	5.088(<.001)	.162	3.496(.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8	-4.622(<.001)	.011	.230(.819)
personality tendency	.033	.568(.570)	.046	1.139(.256)
satisfaction with major	-.205	-3.063(.002)	-.024	-.528(.598)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014	-.223(.824)	.026	.586(.559)
Korean language skill	.040	.681(.497)	.000	-.002(.998)
school score	-.107	-1.692(.092)	.022	.513(.609)
whether have attended a language program	.021	.346(.730)	.002	.061(.952)
acculturative stress			.497	9.042(<.001)
emotional intelligence			-.130	-2.823(.005)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293	-5.786(<.001)
	<i>adj</i> R ²	F(p)	<i>adj</i> R ²	F(p)
	.424	14.503(<.001)	.777	45.466(<.001)

dummy variable 성별 여성=1 남성 =0, 소속대학 인문사회대학 =1 기타=0, 거주 기숙사=1 기타=0, 어학연수 받음 =1, 받지않음=0

Model I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최종분석에서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564-.91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93- 1.713로 10보다 크지 않아 본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은 성별 ($\beta=-.123$, $t=-2.311$, $p=.022$), 학년($\beta=-.322$, $t=-4.823$, $p<.001$), 거주기간($\beta=.327$, $t=5.088$, $p<.001$), 대인 관계($\beta=-.288$, $t=-4.622$, $p<.001$), 전공만족도($\beta=-.205$, $t=-3.063$, $p=.002$)가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2.4%이었다($F=14.503$, $p<.001$, $R^2=.424$).

Model II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대학생활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최종분석에서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385-.850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09- 2.597로 10보다 크지 않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은 학년($\beta=-.154$, $t=-3.100$, $p=.002$), 문화적응스트레스($\beta=.497$, $t=9.042$, $p<.001$), 감성지능($\beta=-.130$, $t=-2.823$, $p=.005$)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beta=-.293$, $t=-5.786$, $p<.001$)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77.7%이었다($F=45.466$, $p<.001$, $R^2=.777$)[표 4].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100점 만점에 53.49점, 평점평균 5점 만점에 2.6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97.65점, 감성지능은 71.92점, 대학생활 적응은 356.86점이었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CES-D는 16점 이상을 우울로 분류하고 있으며[28],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본 도구를 이용하여 우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 우울점수가 16.19점[7], 15.6점[10] 및 24.33 점[21]으로 파악되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인 CES-D를 5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평균이 53.49점인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점수가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남성, 1학년 인 경우, 인문사회대학 재학생, 기숙사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1-3년인 경우, 전공이나 학교에 불만족하는 경우, 한국어 수준이 보통인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 어학연수를 받은 경우에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 내 가족거주 여부, 독거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유학 기간이나 학년, 성적, 한국어 능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21]나 성별, 한국어수준이나 한국어 연수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적에 따라[7] 그리고 종족, 주관적 건강상태, 수업료 납부유형, 한국어 수준[10]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어학연수를 받은 경우 한국어 활용능력이 상승하여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나, 본 연구결과는 어학연수를 받은 경우에 우울점수가 높았다. 어학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영역이었다[34]. 따라서 어학연수라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학능력은 단기간에 상승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학업을 따라가며, 일상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연구마다 우울수준이나 그에 차이를 미치는 대상자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추론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경제상태나 건강상태, 그리고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이처럼 우울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기 때문[7][10][17][21][35]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동안 우울수준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시험과 같이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우울의 영향변수 지정을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감성지능이나 대학생활 적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좋았고[14-1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상관성이 있었다[34]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대상자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2단계에 걸쳐 시행하였다. Model I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Model II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학생활 적응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모델에서는 학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학생활 적응이 영향을 미쳤고, 전체 설명력은 77.7%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성별, 성적, 음주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7], 주관적 경제상태, 한국 내 가족 거주 여부, 문화적응 스트레스, 교수의지지, 동료 중국학생의 지지, 가족의지지, 정보적지지, 경제적 및 도구적지지[21]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낙관성[6]라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미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사회적지지[6][10][21]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수가 확인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결과 감성지능은 대응전략이나 스트레스지각 및 대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졌는데[24-28], 본 연구결과 감성지능은 우울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우울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지능을 높이거나, 유학초기 감성지능 수준을 파악하여 우울 관리집단을 선별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대상자를 확대하여 우울수준을 재확인하는 후속 연구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울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관리함과 동시에 감성지능 등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Nov 4 (2014).
- [2] <http://www.index.go.kr/potal/main/>, Nov 4 (2014).
-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Dec 25 (2014).
- [4] H. S. Jeo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among Chinese stud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Vol.14, No.1B, pp.231-245.
- [5] H. S. Jeong, Stress and Counseling need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Vol.14, No.2B, 949-963.
- [6] H. J. Kim and E. J. S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optimism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11), Vol.9, No.3, pp.3-12.
- [7] S. Y. Kyung and S. M. Jang,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 Vol.34, pp.399-421.
- [8] S. B. Lee and D. W. Kim, Exploring influential factors on cultural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Speech & Communication. (2009), Vol.11, pp.47-79.
- [9] H. K. Kim, Y. J. Son, M. R. Lee, J. Ch. Lim, H. K. Chang, S. J. Han, N. Y. Yang, M. R. Yoo and E. J. Ko,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J Korean Acad Adult Nurs. (2010), Vol.22, No.2, pp.143-153.
- [10] M. R. Yoo, S. Y. Choi, Y. M. Kim, S. U. Han, N. Y. Yang, H. K. Kim, H. K. Chang, M. R. Lee and Y. J. Son,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3), Vol.19, No.3, pp.320-329.
- [11] M. S. Kim, Shi FenYu, Piao Jinlan, and Y. S. Seo, Moderating effects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fectionism on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ve symptoms, and somatization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0), Vol.29, No.4, pp.725-745.
- [12] M. K. Jin and Y. J. Cho,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11), Vol.14, No.4, pp.77-89.
- [13] Ch. S. Lee,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2)**, Vol.9, No.2, pp.121-140.
- [14] Q. L. Lim and H. K. Kim, A prediction model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 Vol.17, No.3, pp.501-513.
- [15] J. S. Baik,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1)**, Vol.29, No.3, pp.119-131.
- [16] J. W. Berry and U. Kim,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al Review.* **(1987)**, Vol.21, pp.491-511.
- [17] W. Kim, Current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using the PH-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2)**. Vol.20, pp.203-229.
- [18] J. D. Hovey and C. A. King,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 Am Acad Chil Adolesc Psychiatry.* **(1996)**, Vol.35, No.9, pp.1183-1192.
- [19] J. S. Jeong and J. M. Kim, The effect and development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for accultur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 Vol.14, No.3, pp.1895-1917.
- [20] M. J. Jin, S. M. Bae and M. H. Hyun,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16, No.4, pp.783-797.
- [21] H. J. Le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s,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 Society for Wellness Research.* **(2012)**, Vol.7, No.3, pp.129-143.
- [22] M. Kim, J. Park, and J. Paik,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for activating mobile voIP, *Management and New Computer Science.* **(2009)**, Vol.5787, pp.470-472.
- [23] D. B. Nelson and G. R. Low, *Emotional Intelligence*, Prentice Hall, Boston **(2011)**.
- [24] A. Moradi, N. Pishva, H. B. Ehsan, P. Hadadi and F. Pouladi,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2011)**, Vol.30, pp.748-751.
- [25] H. S. Park, J. H. Ha, M. H. Lee and H.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of nurse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4)**, Vol.21, No.4, pp.466-474.
- [26] O. S. Lee, and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 Vol.14, No.6, pp.2749-2759.
- [27] M. B. Vergara, N. Smith and B. Keele., Emotional intelligence, coping responses, and length of stay as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in Thailand,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0)**, Vol.5, pp.1498-1504.
- [28] E. J. Shin and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 Vol.14, No.11, pp.5636-5645.

- [29] L. S. Radloff,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97), Vol.1, pp.385-401.
- [30] K. K. Chon and M. K. Rhee,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2), Vol.11, No.1, pp.65-76.
- [31] D. S. Sandhu and B. R.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1994), Vol.75, pp. 435-448.
- [32] C. S. Wong and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 Vol.13, No.3, pp.243-274.
- [33] R. W. Baker and B. Siryk, Measure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4), Vol.31, pp.179-189.
- [34] H. S. Jeong., Stress and Counseling Need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Vol.14, No.2B, pp.949-963.
- [35] L. J. Crockett, M. I. Iturbide, R. A. Torres-Stone, M. McGinley, M. Raffaelli and G. Carlo,.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07), Vol.13, No.4, pp.347-355.

